■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일상 속에서의 구원 성경: 시편 25편 3-13절

Tag:

3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시 25:3-13)

구원은 사실 일상 속에서 얻는 것이다.
구원은 먼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구원은 일상의 DNA가 바뀌는 것이다. (삶의 DNA)
의심의 DNA가 믿음의 DNA로 바뀌는 것이다.

정죄의 DNA가 용서의 DNA로 바뀌는 것이다.
멸망의 DNA가 유업의 DNA로 바뀌는 것이다.
멸망이란 일상 속에서 망할 짓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일상 속에서 매번 구원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망하는 일상 DNA가 있고, 구원의 일상 DNA가 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일상 속에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간이다.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앙탈을 부리고, 욕심이 많으며, 공격적이고, 자랑하느라 정신줄을 놓으며, 위선적이며, 교만하다.
흔한 인간의 일상이 늘 그렇다. 그런 모습들이 인간 실존의 주소다.
물론 우리의 일상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지는 않다. 특히 구원받은 자들의 일상은 훨씬 아름답다.
구원의 DNA가 있는 자들도 순간 순간 실존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고, 친절하고, 양보하고, 참고, 칭찬하고, 환한 미소를 건네준다.

3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주를 기다리는 자들, 무언가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주의 지혜가 무엇일까 찾는 자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수치 당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누군가를 속이려는 자들은 수치 당할 위험이 크다. 욕심 내려는 자들, 누군가를 놀리는 자들, 주를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덤비는 자들은 수치 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수치를 당하는 않는 것이 일상 속에서의 구원이다.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란, 주님의 길; 주님께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길, 좁은 길이다.

좁지만 옳은 길, 하고 싶지 않지만 하면 좋은 길,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하는 길이다.

현대 사회는 핑계거리가 많은 사회다.

-근무 시간이 끝났어요, 내가 당직이 아니어요, 나는 그런 일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낭만닥터 김사부는 한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책임 따지기 이전에(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아무런 댓가 없이 하는 것이 주의 길이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누군가는 손해 봐야 한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이라면 그 길이 주의 길이다.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진리를 깨우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한다.

-예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행동 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성령님께 답을 요청한다.

-어떨 때는 종일 주께서 주시는 답을 기다린다. 그러다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일상 속에서의 구원이다.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우치는 것이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

-잘못했는데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것이야 말로 수치고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간절하다.

-그가 주의 긍휼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구원을 체험한 것이다.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을까?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자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죄인들에게 교훈하신다.

-얼마나 끔찍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인가?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이다.

-하마터면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을 텐데, 순간 모면하고 살아 남았다. 구원의 순간이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순간이다.

-가까스로, 위기 가운데 수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어떤 자는 적반하장이다. 그는 망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자이다.

9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구원 받는다.

-자존심 생각하고, 위신 생각하고, 보복 생각 하다가는 망한다.

-성경말씀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는 구절이 많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

-결국 마음이 온유한 자가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 그가 구원 받는다.

10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핵심적인 말씀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구원의 모든 길;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1. 언약의 말씀에 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2. 증거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3. 인자(하나님의 사랑)와 진리(의 말씀)가 너를 구원한다.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죄악이 크오니;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나의 죄보다 자랑이 크다고 믿는 자는 자랑으로 구원을 삼는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 보다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한다.

왜냐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의 깊이와, 죄의 원인과, 죄의 실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면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구원이다.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구원 얻은 영혼은 평안히 살겠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